

'진안고원 수박' 라이브커머스 완판 농업인 단체 소통·화합의 장

진안고원물 추진 300개 한정 판매 2시간만 완판 등 높은 성과 기록

진안군 지역 온라인 쇼핑몰인 진안고원몰이 추진한 '진안고원 명품수박' 라이브 커머스가 완판을 기록했다.

군은 지난 26일 네이버쇼핑라이브 도전 라이브 카테고리를 통해 준비한 진안군 농업조합공동사업법인의 '진안고원 수박' 300개 한정 판매가 2시간만에 완판 됐으며, 진안고원몰에도 총 주문량이 700건에 육박하는 등 높은 성과를 거뒀다.

특히 2만원 중반대의 품질 좋은 진안고원 명품수박을 1만원 중반대 특가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점과 준비한 물량에 한해 다음날 바로 발송이 가능한 점 등이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이다.

특히 사모(35)데이 이벤트 35% 할인 쿠폰이 발급 1시간만에 조기 소진돼 방송진행 중 100건을 추가 발급하는 등 엄청난 관심을 보였다.

이번 라이브 방송에서는 진안군청 직원과 진안군 수박 공산출하회 소속

농가(연합회 회장 이상재)가 함께 수박의 다양한 효능과 레시피를 공유하고 맛보는 시간으로 구성했다.

또한 진안군 농업조합공동사업법인의 수박 선별·포장과정 영상을 시청자에게 소개해 진안고원 수박의 품질과 안전성 등 명품수박으로서의 이미지를 널리 홍보했다.

오는 7월 30일~31일 동향면 체원공원에서 개최예정인 진안군 동향면 수박축제의 포스터 등을 화면으로 소개하며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진안고원몰 관계자는 "이번 라이브 커머스 완판으로 관내 수박농가의 관로 확대에 큰 도움이 되고 진안의 품질 좋은 상품들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적극적인 기회가 된 것 같아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추석맞이, 진안홍삼축제 등 월별 다양한 라이브커머스 진행으로 고객들을 찾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지역 온라인 쇼핑몰인 진안고원몰이 추진한 '진안고원 명품수박' 라이브 커머스가 완판을 기록했다.

제15회 무주군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 열려

무주군은 28일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제15회 무주군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를 열고 농업인 단체의 화합과 결속을 다졌다.

한마음 대회는 농업인학습단체 및 회원 간에 소통과 화합을 통한 공동체 의식 역량을 키워 자립기반을 구축한다는 취지다.

이날 개회식에 이어 고리걸기와 신발던지기, 제기차기 등 한마음 행사와 탄소중립실천 결의문 낭독 및 퍼포먼스, 단체별 장기자랑 및 행운권 추첨 순으로 진행되면서 흥미와 자긍심을 고취시켰다.

기념식에는 황인홍 군수와 무주군의회 이혜양 의장을 비롯한 생활개선회(회장 강신정), 한국농촌지도자무주군연합회 유종석 회장, 무주군4-H본부 이종인 회장, 무주군4-H연합회 서수영 회장 등 농업인학습단체, 그리고 내외빈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무주군 4-H연합회 부회장인 구자명, 서선아 회장은 '탄소중립실천 결의 공동선언문'을 통해 농업인학습단체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와 함께 대응하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희망농촌 실현, 행복한 삶을 영위할 있도록 적극 노력, 탄소중립 실천과제 발굴과 이행, 탄소중립을 위한 범 군민적 합의와 공감대 확산 위해 상호 공동 협력할 것을 낭독해 관심을 보였다.

이날 한마음대회에서는 무주군의 농업발전에 공헌이 큰 농업인들과 공직자들에 대한 표창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황인홍 군수는 "농민이 흘린 땀방울을 소득으로 연결시켜야 한다"며 "농업인들이 농업현장에서 열심히 일하



무주군은 28일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제15회 무주군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를 열고 농업인 단체의 화합과 결속을 다졌다.

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 농가소득을 올려 부자되는 농촌을 만들자"고 말했다.

이어 "군에서는 1읍·면 1특화 소득작목 육성을 비롯해 농업인월급제 확대지원, 스마트팜 확산 지원 사업, 산지유통시설 확충 등으로 농가소득을 위한 정책 발굴에 노력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한국생활개선무주군연합회 강신정 회장은 "소통과 화합으로 희망을 일구는 농업인학습단체라는 주제로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지금의 경제위기와 향후 농업의 미래가 걱정되지만 학습단체 회원들이 다 함께 뜻을 모으고 소통해 나간다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군, "8월 주민세 납부하세요"

무주군은 8월에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이 원활하게 납부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주민세(사업소분)의 경우 지난해 지방세법 주민세 개정으로 기존 재산분과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신고·납부로 전환됐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7월 1일) 무주군에 주소소를 둔 세대주(개인분)와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법인(사업소분)으로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액 4,800만 원 이상 사업자만 해당하며,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기일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군은 신고납부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 최소화와 납부자 편의를 위해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서를 8월 초에 발송할 계획이며, 기재된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는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처리된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상 과세내역이 현황과 다를 경우 군청에 직접 방문도 가능하며 우편·팩스로 신고 후 납부하거나 위택스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서울서 열린 푸드&투어리즘 페어 참가

진안군은 27~28일 양일간 서울 양재 iT센터에서 열린 2022 푸드&투어리즘 페어(바캉하)에 참가해 군 홍보에 나섰다.

(사)한국웰니스산업협회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K-웰니스 푸드&투어리즘 페어는 코로나 팬데믹 동안 침체된 농수산 식품업계와 지역관광의 회복과 도약을 위해 추진하는 융복합 홍보전이다.

진안군은 관광과, 산림과, 농산물유통과(홍삼클러스터 사업단) 등 3개과가 공동으로 참여해 진안군 관광, 홍삼제품, 임산물(건버섯, 산양삼), 진안홍삼축제 홍보 등 군 이미지 제고와 특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홍보에 매진했다.

특히 이번 바캉하에서 K-웰니스 브랜드 대상에 수상하여 힐링과 치유 관광지로서 명성을 재확인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제6회 장수 변암 물빛축제 개최

29~30일 물빛공원 일원서 진행

장수군 변암물빛축제위원회(위원장 임정택)는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변암면 물빛공원 일원에서 '물과 빛'을 테마로 제6회 변암 물빛축제를 개최한다.

여름의 더위를 식혀줄 변암 물빛축제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2년 만에 다시 개최하는 것으로 오색조명 분수 향연과 각종 물빛 체험 및 게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즐길거리와 볼거리, 먹거리가 가득한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

장수군 주최, 변암물빛축제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변암 물빛축제에서는 29일 '그야말로 옛날식 콩쿨대회', '한밤의 감동 영화관람' 등이 펼쳐지며, 30일에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개막식, '얼음 위 오래버티기', '수박 빨리먹기', '수중 보물찾기', '맨손 메기잡기' 등 다채로운 게임 프로그램을 위해 애써주시는 임정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주민들의 협조와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변암 물빛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홍열 변암면장은 "이번 축제 준비를 위해 애써주시는 임정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주민들의 협조와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변암 물빛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변암면 이장협의회와 의용소방대, 자

율방범대 등 단체 및 관내 유관기관은 프로그램과 축제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도 민방의 준비를 갖출 계획이다.

임정택 축제추진위원장은 "2년만에 개최되는 물빛축제인 만큼 지역 주민들과 함께 축제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이번 축제가 변암면 주민들이 화합하고, 많은 방문객들에게 변암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홍열 변암면장은 "이번 축제 준비를 위해 애써주시는 임정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주민들의 협조와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변암 물빛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 특산물지원센터 특별교부세 10억원 확보

장수군이 특산물지원센터 개·보수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장수군 특산물지원센터는 2011년 국토부 소도읍 사업으로 건립된 사업으로 장수한우 전문점을 비롯해 사과, 배, 토마토, 각종 가공품, 특산물 등을 취급하고 있는 곳이다.

장수군 특산물지원센터에는 60여 농가가 농·특산물을 납품하고 있으며 연중 4만 여 명 이상의 방문객이 방문

하고 있어 장수군의 대표적인 농·특산물판매센터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이 협소하고 천장누수, 온·난방기 작동 불량, 전기설비 잦은 누전, 바닥 갈라짐 등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지만 시공 난이도가 높고 사업비가 부족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

군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협소

하고 노후화된 장수군 대표 특산물지원센터 내부 인테리어 및 리모델링이 가능해져 앞으로 장수군 특산물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직거래를 통한 유통 확대로 농가 소득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우리 군의 대표적인 특산물지원센터를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로 재경비해 방문객 및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연중 안전한 우수 농·특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기반 구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구천동 계곡서 '한여름밤 콘서트' 열린다

국내 최고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무주구천동 계곡에서 한여름밤의 콘서트가 마련돼 주목을 받고 있다.

한여름밤의 콘서트는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무주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한 취지에서 열린다.

오는 30일과 내달 6일 토요일 오후 두차례 마련된다. 특히 이번 콘서트는 여름철 관광성수기에 구천동 관광특구를 찾은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에게 새롭고 신선한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무주군이 주최하고 구천동관광연합회와 (사)구천동관광특구상인연합회가 주관했다.

무주구천동 계곡에서 한여름밤을 흥미롭게 수놓게 될 이번 콘서트는 전문

MC의 레크레이션과 미스트롯 출연자, 싱어게인 출연자 등이 공연하고 무주 지역 가수들도 다 같이 참여해 관람객들에게 흥을 돋우게 된다.

흥겨운 EDM(전자음악) 공연으로 그동안 코로나와 무더위에 지친 무주군을 찾은 관광객들과 지역주민들에게 활력과 즐거움을 선사한다.

황인홍 군수는 "구천동 관광특구를 찾아주시는 모든 관광객들과 지역주민들께서 콘서트를 즐기면서 잠시나마 무덥고 힘든 코로나 시국을 잊고 즐겁고 신나게 보내는 휴식과 힐링의 시간이 됐으면 한다"며 "이 행사를 계기로 구천동지역 관광활성화와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